



3면

탐골공원서 열린 3·1절 기념식 문 대통령, '국난극복' 다짐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음 1월 19일) 제2727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형 공유자원 통합 플랫폼 '가치앗이' 오늘 오픈 도내 공유경제 '정보통'

도, 활성화 기반 온라인 구축
'가치를 같이 나누다'는 뜻
거래할 수 있는 '장터'
위치 알려주는 '지도'
거래소 '거점' 등 구성돼

전북도가 공유경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북형 온라인 플랫폼 '가치앗이(www.jbshare.kr)'를 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와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공동체, 친년전복'을 비전으로 공유경제 기반조성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17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18년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두고, 차별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지난 한 해 각고의 노력 끝에 '가치앗이'를 열게 됐다. 도민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가치앗이'는 '가치'와 '같이'의 의미를 아우르고, 품앗이의 '나누다'는 뜻의 '앗이'를 결합해 '가치를 같이 나누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가치앗이'는 공유자원 제공자와 사용자의 연결, 공유기업 정보 제공 등 공유자원 통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공유자원 거래를 할 수 있는 공유장터, ▲공유자원의 위치를 알려주는 공유지도, ▲공유자원 거래소인 공유거점, ▲공유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페이지 등으로 구성됐다. 공유물품 거래는 공유화폐인 '앗이'로 결제되며, 거래 당사자간 책임하에 현금으로도 결제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공유경제 플랫폼 가치앗이에는 공유자원 368건(물건48, 공간175, 재능145건), 공유거점 10개소가 등록됐다. 자원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원을 등록할 수 있고, 공유거점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공유거점 등록 신청 후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도민들의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 창의학습 동아리(10개팀), 공유실현실(3개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모집은 3월 중 가치앗이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 기관인 전북경제통산진흥원(711-2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가치앗이 오픈을 앞두고 민·관·기업이 서로의 가치를 나누는데 동참해 진정한 가치앗이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문화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와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순국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 계승'

전북도, 3·1절 기념식 올해는 비대면으로 전환

코로나 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돌봄 지원 한시적 확대

전북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훈단체장,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행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줌(ZOOM)' 화상연결 프로그램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하며,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3·1운동 102주년을 다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비인 시점에서 3·1절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도민들을 직접 만날 수 없어 아쉽다"며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신접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빈틈없는 방역조치로 도민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부담 60~90%까지 줄어들어 24시간 일하는 특성 고려 요일·시간 상관없이 이용 가능

전북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요원인력 및 지원 인력이다.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

관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요원·지원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의 경우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400원에서 4,016원으로 60%줄어들게 된다. 또한, 24시간 일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idolbo.m.go.kr)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 돌보미가 이용가장 방문시 방역을 철저히 해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 17개 업소 방역수칙 '미준수'

전주시, 지난달 28일까지 PC방·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점검 결과, 17개의 업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2일 PC방 관련 확진자 7명이 발생하고 25일과 26일에는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연휴 기간 PC방과 피트니스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87.2%(인) 1만2,6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8일 점검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연휴 기간과 상관 없이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부과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일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날씨가 풀리면 시민의식이 해이해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조금만 더 인내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